

## 아버지의 편지

반쯤 열린 베란다 틈새로 비 오기 전 장마철의 습습한 바람이 새겨 든다. ‘이런 날은 막걸리가 제격이야.’ 수많은 음식을 올린 제사상을 앞에 두고 문득 떠오른 생각이다. 저 향 너머 살고 계신 그가 생각난다. 다 같이 큰절을 한번 드리고, 거실의 불을 끈 채 안방으로 스며든다. 아이가 묻는다.

“아빠, 불은 왜 끄는 거야?”

“응, 그래야 할아버지가 우리 눈치 보지 않고 음식을 편하게 드시겠지?”

안방에서 휴대폰을 확인한다. 그사이 몇 개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다.

‘아버지 제사 찾아뵈어야 하는데, 일이 바빠서…… 대신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 정육점 아저씨이다. 그의 문자를 보니 나 어린 시절이 떠오르며 문득 그리워졌다.

아버지는 충남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셨다. 그 당시 공무원의 봉급이 워낙 박봉인지라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나를 포함한 삼남매를 키우기에도 빠듯하셨으리라. 그럼에도 행여나 명절 때마다 학교에 납품하시는 분들이 집에 찾아와 주는 선물들은 모두 돌려보내셨고, 그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집 마당 들마루에서 숟가락 하나 더 놓고 같이 밥을 먹여 보내시곤 했다. 이때마다 ‘안 받으면 안 받고 보내면 될 것이지 왜 굳이 밥까지 먹이고 보내냐’는 어머니의 불평에 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이야기하셨다.

“월체 깨끗하고 동시에 친절하기가 참 어려운 법이여, 허허.”

워낙 소도시 고등학교다 보니 동네에서 서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분위기였다. 어느 날은 식당에서 가족끼리 밥을 먹다가 나가려다 보니 알게 모르게 계산이 돼 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행정실이 돈을 만지는 곳이기에 학교에 물품 등의 거래를 튼 업체 사람이 잘 봐 달라는 뜻에서 그랬던 듯싶다. 그 뒤로 아버지는 식당에 가서 아는 누군가가 있는지 보고, 혹시라도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선불로 계산을 하셨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대가 없는 선물을 준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여. 비록 사는 게 궁색해 두 꿈에서라도 깨끗해야 한다. 그게 공무원이 할 일이여.”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초등학생이었던 내가 집 앞에서 놀고 있는데, 정육점 아

저씨가 아버지와 맛있게 먹으라며 나에게 커다란 봉지를 하나 내밀었다. 그 안에는 고기가 가득, 아니 그득그득 들어 있었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집에 가져갔다. 어머니는 그걸 보시더니 한참을 망설이시다 자식이 셋이며, 먹성 좋은 우리들을 위해 고기를 구우셨고, 꽤나 맛있게 오랜만에 마음껏 먹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게 한참을 먹고 있었을 때 아버지가 퇴근해 돌아오셨다. 웬 고기냐고 물으셨을 때 어머니는 처음엔 답을 하지 않으셨다. 재차 묻고 나서야 요 앞에 정육점 아저씨가 먹으라고 줬다고 답하셨고, 그날 밤 내가 아는 가장 큰 언성이 안방에서 오갔다. 아마도 학교 급식실에 납품하시던 아저씨였나 보다.

그다음 날, 아버지는 나에게 웬 편지를 하나 주셨다. 편지 봉투를 풀칠하였기에 내용을 읽을 순 없었지만, 편지와 함께 동봉된 봉투가 꽤 두툼한 걸로 봐선 어제의 그 고기값이 아닐까 싶었다. 난 곧장 아버지 말대로 정육점 아저씨에게 갖다 드렸고, 정육점 아저씨는 편지를 읽으며 얼굴이 벌게 지셨다. 그날 저녁 정육점 아저씨는 우리 집을 찾아오셨고, 아버지는 반가이 맞으며 술상을 차리셨다. 그 뒤로 그분은 아버지를 친형처럼 따랐다. 많은 시간이 흘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정육점 아저씨는 그 누구보다 큰 울음을 게워 내셨다.

그런 내가 지금 아버지와 같이 학교에 근무하게 되었다. 비록 아버지는 행정실에, 나는 교단에 서게 된 것이지만, 이것만으로도 아버지의 삶을, 그의 말씀을 반추하는 데 충분했다. 스승의 날 즈음이면 새삼 씩씩한 가정통신문을 집으로 보내곤 한다. 청탁금지법에 의거 카네이션 한 송이 정도를 제외한 그 어떠한 선물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 마치 마음도 없는 이에게 ‘내게 고백하지 마세요’라며 김칫국 한 사발 거하게 들이켜는 느낌이랄까.

물론 내 교직 생활에도 딜레마 아닌 딜레마 같은 일이 있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일 게다. 담임을 맡은 아이 중에 가수를, 적확히 하자면 래퍼를 꿈꾸는 학생이 있었다. 때때로 뭐 하나 엿보면 연습장 가득 빼곡히 가사를 써내려 가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였다. 그런데 하루는 그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 집에 전화해 보니 대신 받으신 어머니가 아들이 아프다고 오늘 하루만 쉬겠다고 했다. 그러려니 했건만, 그다음 날도 오지 않고, 그다음 날도 마찬가지로였다. 뭔가 이상했다. 집에 전화해 조심스레 여쭙 보니 ‘실은 우리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라는 울먹임이 돌아왔다.

자세한 사정을 듣고 보니 그랬다. 아이는 래퍼를 하고 싶어 하며, 오롯이 음악에만 열중하고 싶기에 공부를 소홀히 했고, 반대로 그의 아버지는 공부를 해서 형처

럼 명문 대학에 가기를 원하셨다. 그나마 백번 양보해서 대학에만 가면 음악을 시켜 주겠다고 했지만,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었다며 래퍼에 대한 욕심을 접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로 부자간의 사이는 서서히 금이 갔고,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투명 인간 취급했으며, 아이는 신변을 비판했다. 그렇게 서로를 저버린 채 말을 안 한 지가 3개월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이 사달이 난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중재하지 못한 본인 탓이라 여기시는 어머니는 신경 안정제를 복용해야 할 정도로 쇠약해지셨다.

대체 어디에 있을까. 이 험한 세상에…….

나는 지금껏 남자반의 담임을 맡았기에 힘이 들끓는 남자아이들의 열정을 분출시키고자 일 년에 한두 번은 축구장 및 각종 운동 시설이 있는 갑천 체육공원으로 학급 단합대회를 나가곤 한다. 그곳에서 축구도 하고 우리 반 올림픽도 하며 아이들과 화합을 도모했다. 장기 자랑 시간에 그 아이는 신명나게 랩을 해 호응을 받았다. 그때 그 아이가 스치듯 내게 했던 말이 기억난다.

“쌤, 전 집보다 여기가 좋아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때마침 춥지 않은 날이었고, 쉼터처럼 생긴 긴 벤치가 있으며, 저녁에는 버스킹도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공원이었기에 그러 했을 터다. 이제야 그 행간을 파악한 나는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그곳으로 차를 타고 가 보았다. 그 끝 저 멀리 벤치에 새우잠을 청하고 있는 그 아이가 보였다.

그날은 긴 하루였다.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갑천을 거닐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생각이 깊고 그만큼 고민도 많은 아이였다. 대화 끝에 랩의 가사로 영어를 공부하고, 랩의 운율로 문학을 공부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있을 축제에서 성공적인 데뷔를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마음이 누그러진 아이를 가정에 돌려보냈다. 그 아이는 그날을 기점으로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주말에는 서울에 있는 놀이공원에도 놀러 갔다 왔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얼마 뒤 그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오셨다. 고맙다며 아이가 갑천에서 자신을 찾아 준 선생님을 보고 감명받은 것 같다고 하셨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제가 쓴 책이거든요, 선생님 드리고 싶어서요.”

학생의 아버지는 정성스레 포장된 책을 한 권 주고 가셨다. 과목이 과목인지라 독서를 좋아하는 나는 감사히 받았다. 교무실 밖까지 모셔다 드린 후 무슨 책인지 궁금하여 포장을 꺼냈는데, 아뿔싸 그 안에서 봉투가 툭 떨어져 나왔다. 조심스레

열어 본 그 봉투 안에는 상당한 양의 금액이 있었다. 나는 당장 아버지의 차로 뛰쳐나갔지만 이미 떠난 후였다.

전화를 수차례 해도 받지 않는 아버지. 그저 고마워서 그러니 그때 그 아이 밥값이라며, 반 아이들 삼겹살이라도 사 주라며 문자 메시지만 보내시는 아버지. 이를 어찌면 좋을까, 차라리 맘 편히 받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급식비라도 내줄까……. 그게 오히려 다수의 아이들을 위한 일이 아닐까. 딜레마였다. 지금과 같은 명확한 상황별 원칙이 없던 시기이기에 더욱 당황했던 듯싶다.

문득 어릴 적 아버지가 정육점 아저씨에게 보냈던 편지가 떠올랐다. 그래, 그거야, 청렴의 기조 아래 상대방이 민망하지 않게 청렴과 친절이란 두 가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무슨 말을 써 내려갈지 한참을 고민했다. 때로는 거부에도 요령이 필요하다. 교직에는 이러한 딜레마가 상주하고 있다. 여하튼 꼭꼭 써 내려간 그 편지의 요지는 이거였다.

‘아버님,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평소 좋은 생각을 함양해 주기에 즐겨 읽던 책자에 그 편지와 봉투를 넣어 포장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뒤져 얻어 낸 주소로 안전하게 등기로 보냈고, 얼마 뒤 너무 죄송하고, 염치없다는 뉘앙스의 연락이 왔다.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다. 만약 내가 그것을 받았다면 아마도 지금 향 너머에 살고 계신, 평생을 청렴한 공직자로 살다 가신 것을 자랑으로 여기신 아버지에게 평생 떳떳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정육점 아저씨에게 썼던 편지의 내용이 이런 말이었겠구나 생각하니 그가 그리워지는 순간이었다.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갯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다면 발을 씻어라’라는 초나라 굴원의 격언이 있다. 사람은 자고로 세상이 청렴하고 결백한 이들로 넘쳐난다면 그러한 세상을 위해 일하고, 그렇지 않고 부정과 비리가 판친다면 손을 씻고 자연으로 회귀하라는 의미이다. 무릇 세상을 위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청렴 연수를 클릭하며, 청렴이란 말이 사라질 때 진정한 청렴이 다가오지는 않을까 하는 역설을 품으며, 문득 이 글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아로새긴다. 아버지가 일궈 준 가르침을 디딤돌 삼아 같은 공직을 걷게 된 나. 유난히도 아버지의 편지가 떠오르는 날이다.